

주현절 후 세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1년 1월 2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84 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 58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 번 시편(Psalm) 8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18:18-27	김숙희 집사
-------------------------	----------------------	--------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1)- 선한 능력으로”	김일선 목사
(Gathering Together Again – By Gracious Powers)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	-----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	--------------------------	-----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	-----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	------------------------------	-----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	--------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말을 반복할 때가 많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진정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1:21, 히 3:1, 히 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나를선하다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글개역 **눅 18:18-19**)

“A certain ruler asked him,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 – except God alone.’” (NIV **Luke 18:18-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4 (주일)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30 (토)
본문	창25	창26	창27	창28	창29	창30	창31
	마24	마25	마26	마27	마28	막1	막2
	행24	행25	행26	행27	행28	롬1	롬2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27 오후7:30)	“구원의 포괄적 이해와 적용” (롬8:18-25)
토요 새벽기도회 (1/30 오전6:30)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시24:1-10)

지난 주일(1/17)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0) – 성숙함으로” (고전 3:1-9)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성숙)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줍니다. 즉,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신앙 공동체)일수록, 상대적으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성숙)은 개인적 차원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적 차원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 교회의 영적 성숙도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얼마나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신앙적으로 성장한 교회이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고전3:6-7). 그러므로, “다시 만나는 교회”를 사모하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실 신앙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더욱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리하여,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불러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